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김보민**

본 연구는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인 민족제일주의의 연장선에서 김정은 시기의 통치담론인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2000~2019년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로동신문』 논설을 분석하였다.

2004년에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통일을 목표로 하며 실천 주체를 한민족으로 설정한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북한 인민을 실천 주체로 보는 담론인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분화한다. 담론의 분화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유지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약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정은 집권 후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한다. 기존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논리 구조는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계승한다.

통일을 목표로 하며 실천 주체가 한민족인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논리 구조는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일 지향 담론이 김정은 시기에 약화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의 선대와 다른 통일 인식과 변화한 남북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본 연구는 해석한다.

주제어: 우리 국가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북한 민족주의, 북한 통치담론

* 이 글은 필자의 석사 학위논문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이화여자대학교, 2021)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석사.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거론한 후 북한 당국의 새로운 통치담론으로 주목받았다.¹⁾ 2021년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7차 대회 이후 5년을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로 평가하기도 하였다.²⁾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북한의 기존 공식 담론과 어떤 관계일까? 그 단서를 북한 문헌에서 확인하였다. 북한 당국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김정일애국주의”라고 하였다.³⁾ 김정일애국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이어져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애국주의의 원천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있다고 했으며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밝혔다.⁵⁾ 이러한 서술에 미루어 보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19년 북한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를 고찰

1) “북 “완벽한 계승, 세계가 부러워해”, 『조선일보』, 2019년 1월 10일; “북, ‘수령’보다 ‘국가’ 띄우기…시장 경험 주민 의식변화 반영,” 연합뉴스, 2019년 1월 29일.

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보고에 대하여,” 『조선신보』, 2021년 1월 9일.

3) “[론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로동신문』, 2019년 1월 20일.

4) 림춘관, 『참다운 애국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5), 145~148쪽.

5) “[론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로동신문』, 2019년 1월 20일.

하여 ‘우리 민족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⁶⁾ 김정일이 1986년에 주창한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2019년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이어졌을까?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대상 시기를 2000~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북한 당국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처음으로 언급한 시기가 2000년이다.⁷⁾ 2000년 이후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양적 증가를 확인하였다. 1986~1999년 제목에 민족제일주의 용어가 있는 『로동신문』 기사는 9건이었으나 2000~2019년 제목에 민족제일주의 용어가 있는 『로동신문』 기사는 50건이었다.⁸⁾

그동안 김정은 시기의 통치담론으로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주목한 연구들은 있었으나⁹⁾ 기존 담론인 민족제일주의의 연

6) 북한 문헌은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용어를 사용할 때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북한 문헌의 표기 방식에 따라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표기한다.

7)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 하든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

8) 『로동신문』 기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아카이브에서 제목 검색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기사는 제목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1건으로 측정하며,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과 기사 내용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큰 제목을 기준으로 1건으로 측정하였다.

9)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2019), 309~345쪽;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2014), 65~92쪽;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권 3호(2013), 187~212쪽;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1호(2020), 8~38쪽;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장선에서 이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⁰⁾ 북한 당국의 통치담론을 이해할 때 기존 담론과 갖는 관계를 보는 일은 중요하다. 혈연을 바탕으로 한 계승이 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후계자는 아버지의 권력을 계승하였으므로 아버지의 통치담론을 부정할 수 없지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면 자신만의 통치담론도 내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의 최고지도자에게는 기존 통치담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내용의 통치담론을 제시해야 하는 딜레마가 주어진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는 통치담론인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을 내세웠다.¹¹⁾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의 통치담론인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어떻게 계승하였을까? 이 내용은 또 우리 국가제일주의 출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 연구에서는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기에 전개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내용을 분석하며 이 담론의 내용이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내용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고찰할 예정이다.

표상과 시사점』(서울: 통일연구원, 2019); 한승호·이수원,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호 ‘김정일애국주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국방정책연구』, 제29권 2호(2013), 113~138쪽.

- 10) 민족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관계를 언급한 연구들은 있었다. 강혜석(2019)은 우리 민족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서로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영철(2020)은 두 담론의 관계를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민족제일주의의 계승이면서도 단절”이라고 해석하였다.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337쪽;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23쪽.
- 11)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204~205쪽.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연구 전개에 앞서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민족제일주의의 관련 북한 『조선말대사전』 표제어는 민족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있다. “자기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상감정”이면서 “자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인 민족제일주의는 다른 국가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일반론이다. 『조선말대사전』은 북한에서 나타난 민족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규정하였다. 사전 표제어로 나오지 않지만 북한 당국이 쓰는 ‘우리 민족제일주의’ 용어가 있다. ‘우리가 내세우는 민족제일주의’, ‘우리의 민족제일주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북한 당국은 이 용어를 시기에 따라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동의어로 쓰기도 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별개의 단어로 쓰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북한 당국이 북한의 민족제일주의에 관해 생산하고 유통한 담론’으로 정의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 등 관련 용어를 사용한 담론이 해당한다. 민족제일주의 담론 분석을 위해 『로동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0~2019년 『로동신문』 기사 가운데 제목에 ‘민족제일주의’를 포함한 기사를 수집한 다음 수집한 기사 가운데 ‘론설’을 추출했다.¹²⁾

12) 『로동신문』 논설은 북한자료센터 아카이브에서 제목 검색을 활용하여 제목에 ‘민족제일주의’가 나오는 기사를 수집한 다음, 연구자가 세운 기준에 따라 추출하였다. 논설을 추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문헌의 논설 정의에

『로동신문』 논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논설이 주제에 관한 논리를 일관한 내용과 일정한 형식으로 전개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논설을 “사회정치적, 사상리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원리적 분석과 론증을 통하여 밝히는” 기사로 규정한다.¹³⁾ 분석 대상 논설을 검토한 결과, 논설의 서론에는 문제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시작하며 본론에서는 이론적 문제에 관한 설명을 전개하고 결론 부분에서는 과업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 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구호의 형태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사실이 아닌 논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사실보다 논설이 이론을 해설하는 데 집중하는 기사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당 정책을 지시하는 기사이므로 내용에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지시하는 데 주력한다.¹⁴⁾

분석 대상인 『로동신문』 논설은 다음과 같다. 제목에 민족제일주의가 나오는 2000~2019년 『로동신문』 논설의 수는 총 24건이다. 김정일 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목에 ‘김정일애국주의’ 용어가 나오는 『로동신문』 논설 10건 그리고 제목에 ‘우리 국가제일주의’ 용어가 나오는 『로동신문』 논설 6건을 분석 대상 자료로 수집하였다.

『로동신문』 논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논설 내용의 결론 부분에 나타난 ‘목표’와 ‘목표의 실천 주체’를¹⁵⁾ 파악하여 북한

해당하는 기사를 분류하였다. 둘째, 논설에 해당하는 기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신문의 ‘편집선’도 활용하였다. 북한의 『신문학개론』에 따르면 선은 보도기사와 논설 등 종류가 다른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쓴다. 연구자가 기사를 검토한 결과 잔물결 무늬의 선으로 편집 선을 쓴 기사는 논설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사였다. 엄기영, 『신문학개론』(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217쪽.

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CD)(2005).

14) 김영주·이범수, 『현대 북한 언론의 이해』(서울: 한울애플러스, 1999), 47~50쪽.

당국이 해당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목표로 민족제일주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¹⁶⁾ 담론의 목표를 분석하면 북한 당국이 당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활용하는지 알 수 있으며, 목표의 실천 주체를 통해서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전개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담론의 목표를 분류하는 기준은 연구자가 김정일의 1989년 12월 28일 담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자’ 및 1992년 2월 4일 담화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를 분석한 내용과 분석 대상 자료를 사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두 담화는 민족제일주의 이론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1986년 김정일이 제기할 당시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15) 여기서 ‘주체’는 “문장 내에서 술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대상이나 술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을 가리킨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검색일: 2021년 2월 25일).

16) 『기사집필수업』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문기자들이 논설 같은 이론적인 기사를 집필할 때 두 가지 서술방향이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결론으로 이끄는 방향과 결론을 먼저 내리고 결론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향이다. 본 연구에서 전자의 형식일 경우에는 논설의 마지막 문단에 결론이 나오므로 마지막 문단을 분석한다. 후자의 형식일 경우에 목표가 마지막 문단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자가 본론을 검토한 후 본론에 나오는 목표를 분석 결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조형창 외, 『기사집필수업』(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4), 279쪽.

17) 김정일의 1989년과 1992년 담화는 민족제일주의 담론 형성에 있어서 그 중요도가 높다. 북한 당국이 두 담화를 민족제일주의 이론의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북한 문헌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 당국은 『로동신문』 지면에 1989년 담화와 1992년 담화 발표 일을 기념하는 논설을 게재하며 “기념비적 문헌”이라고 칭송하였다. 또 북한 당국은 두 담화에서 나온 김정일의 발언을 인용하여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전개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떨치게 한 위대한 령도,” 『로동신문』, 2002년 2월 3일; “민족제일주의기치높이 떨쳐지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 『로동신문』, 2004년 12월 28일; 『민족문화유산』 2007년 제1호; 2009년 제1호; 2010년 제1호; 2012년 제1호.

<표 1>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목표 분류 기준

항목	해당 용어
사회주의발전 목표 담론	사회주의강국, 혁명, 강성대국(강성국가)
통일 목표 담론	통일(통일강국, 조국통일)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추구하는 담론이었다.¹⁸⁾ 1989년과 1992년 담화에서는 사회주의발전과 조국통일 실현을 모두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민족제일주의 담론에서 두 개의 목표는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각각 드러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의 민족제일주의 담론이 내건 목표를 파악하고 그러한 목표를 내세우게 된 배경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표 1>을 2000~2019년 『로동신문』 논설에 적용하여 분석하면 해당 논설의 결론에서 사회주의강국 또는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민족제일주의를 발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 혁명을 잘하기 위해서 민족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동원’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하고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 분류한다. 또한 강성대국은 김정일이 1998년 국가발전의 목표로 내세운 것으로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가리킨다.¹⁹⁾ 따라서 ‘강성대국’ 또는 ‘사회주의강국’ 용어가²⁰⁾ 담론의 목

18)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44쪽;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2쪽.

1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CD)(2005).

20) 사회주의강국은 사전 정의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강한 나라”이므로 북한 당국이 목표로 사회주의강국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한 담론으로 분류한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평양: 사회과

표로 나오면 사회주의발전 목표 담론으로 분류한다. 통일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제일주의를 기치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통일과 관련한 단어라고 판단하고 통일 목표 담론으로 분류한다.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실천 주체는 북한 당국이 말하는 담론의 대상과 관련이 있다. 북한 당국이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북한 인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지 또는 한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남 담론으로 전개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스미스가 제시한 ‘민족(nation)’ 및 ‘종족(ethnic)’ 개념을 활용한다. 스미스는 민족(nation)을 “공통의 신화와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옛 땅 위에서 공통의 권리와 의무, 단일한 경제를 가진 공동체”라고 규정하였다.²¹⁾ ‘단일한 경제를 가진 공동체’를 가리키는 스미스의 민족(nation) 정의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주민을 각각 구분하는 개념으로 유용하다. 남북한 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한민족’ 관념을 설명할 수 있는 정의는 ‘종족(ethnic)’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종족(ethnic)은 “옛 땅과 연결되고 조상에 대한 공통의 신화와 기억이 있으며 여러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고 엘리트 사이에서라도 연대성이 있는 공동체”다.²²⁾ 북한 당국이 민족제일주의 담론 내에서 목표의 실천 주체를 ‘인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민족(nation)이 담론의 대상이며 ‘온 겨레’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종족(ethnic)이 담론의 대상이라고 분류할 것이다. 분류의 기준은 <표 2>와 같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이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통해 ‘김일성민족’을 강조하여 대내 결속을 추구하는지 ‘한민족’을 강조하여 남북한의 단결을 주장하는지

학출판사, 2007), 568쪽.

21) 앤서니 D. 스미스,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강철구 옮김(서울: 용의숲, 2012), 30~34쪽.

22) 위의 책, 30쪽.

<표 2>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특성 분류 기준(실천 주제)

항목	해당 용어
민족(nation)	인민, 근로자, 당원, 군대, 일군
종족(ethnie)	온 겨레

파악할 수 있다.

민족제일주의 담론과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일애국주의 및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도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내용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만약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파생 담론이라면 이들 담론의 내용이 민족제일주의 담론과 유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목에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각각 나오는 『로동신문』 논설의 결론 부분에 나타난 목표 및 목표의 실천 주체를 파악하여 민족제일주의 담론과 비교할 예정이다.

2.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분화

1)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우세

2000~2003년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김일성민족제일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북한 당국은 김일성민족제일주의보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더 강조하였다. 제목에 민족제일주의가 나오는 2000~2003년 『로동신문』 기사는 총 1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제목에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언급하였다.

김일성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2003년 『로동신문』 논설의 내용분석을 <표 1> 및 <표 2>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 논설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따라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하는 담론과 통일을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 분류하였다.

2000~2003년 논설 5건의 결론 부분에서 말하는 목표를 분석한 결과 강성대국건설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내세운 논설은 4건, 선군정치 실현을 주장하는 논설은 1건이다.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제시하는 기사의 제목에는 모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였다.

선군정치 실현을 말하는 논설 1건은 본문에서 선군정치를 통일과 연결한다. “선군정치는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는 위대한 애국애족의 기치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반미, 반외세, 민족자주통일의 기운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선군정치의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하는 표현에서 나타난다.²³⁾ 김일성민족제일주의의 바탕이 선군정치이며, 선군정치가 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위 논설은 통일을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 분류하였다.

2000~2003년 『로동신문』 논설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은 사회주의발전을 추구하며, 김일성민족제일주의 담론은 통일을 목표로 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북한 당국은 이 시기 민족제일주의 담론에서 민족제일주의의 목표를 실천해야하는 주체를 민족(nation)으로 제시하였다.

이 시기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논리를 요약하면 “북한 인민은

23) “김일성민족제일주의를 높이 떨치게 한 불멸의 기치,” 『로동신문』, 2003년 6월 18일.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높이 떨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라”이다. 북한 당국의 강성대국 건설 강조는 경제발전과 관련 있다. 북한 당국은 강성대국의 세 요소 가운데 군사강국, 사상강국은 이미 달성했으며 경제강국만이 남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²⁴⁾ 200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으로 바닥을 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경제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경제발전에 집중하고자 했던 북한 당국의 의도가 민족제일주의 담론에서도 강성대국과 결합하면서 사회주의발전을 추구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우세로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부상

2004년은 민족제일주의 담론 변화의 분기점이다. 당시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통일구호로 부상하면서 북한 당국이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2004년 신년공동사설의 통일구호는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였다.²⁵⁾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통일구호로 채택되면서 『로동신문』 보도 빈도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4년 한 해에만 『로동신문』 기사 중 제목에 민족제일주의가 나오는 기사는 20건이다. 2000~2011년 민족제일주의가 제목에 나오는 『로동신문』 기사(49건)의 40%다.

2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566쪽.

25)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4년 1월 1일.

분석을 통해 2004년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에서 기존 민족제일주의의 담론과 달라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6년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지만²⁶⁾ 2004년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통일을 목표로 내세운다. 2004년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우리 민족’은 1986년의 ‘우리 민족’과 달리 남북, 해외 동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북한 당국은 2004년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7천만겨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의지라고 말한다.²⁷⁾ 북한 당국이 2004년에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에서 말한 민족은 종족(ethnie) 개념이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발전과 통일을 모두 목표로 내세웠던 조선민족제일주의 및 김일성민족제일주의와 2004년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비교해 볼 것이다. 김정일의 1989년 담화는 “우리가” 조국통일 위업 성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1992년 담화 역시 “우리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발양함으로써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고 조국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²⁹⁾ 통일을 목표로 제시한 김일성민족제일주의 담론도 실천 주체를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지칭했다.³⁰⁾ 이들 담론은

26)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5쪽.

27)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의 기치,” 『로동신문』, 2004년 1월 5일;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자주통일의 필승의 기치,” 『로동신문』, 2004년 11월 2일.

28)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68쪽.

29)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5쪽.

30) “김일성민족제일주의를 높이 떨치게 한 불멸의 기치,” 『로동신문』, 2003년 6월 18일.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를 민족(nation)으로 설정했다는 점에
서 실천 주체를 종족(ethnie)으로 말하는 2004년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
론과 차이를 보인다.

2004년 『로동신문』 논설은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목표로 통일을
을 부각하였다. 제목에 민족제일주의가 있는 논설 10건 중 9건이 우리
민족제일주의 관련 내용이며 모두 “조국통일”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로동신문』 논설의 내용분석을 통해 2004년의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통일 담론이며 2000~2003년의 김일성민족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
의 담론과 달리 ‘강성대국’이나 ‘혁명’을 목표로 삼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제목에 나오는 논
설은 조국통일을 실천해야 하는 주체를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으
로 말하고 있었다. 종족(ethnie)을 담론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양상
이었다.

한편 나머지 1건은 민족제일주의가 제목에 나오는 논설로, 2004년
연말에 나온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담화 발표 15
주년 기념논설이다. 이 논설은 본문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
는 목적은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하자는데 있다”는 김
정일의 발언을 인용하여³¹⁾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목적이 사회주의건설
에 있다고 밝혔다. 이 논설은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이 논설에서 조선민족제일주
의 담론의 목표를 실천하는 주체로 일군, 당원, 근로자를 거론하였다.
실천 주체로 민족(nation)을 말한 것이다. 2004년 제목에 민족제일주의
가 나오는 『로동신문』 논설에서 나타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목표와

31) 앞의 신문, 2003년 6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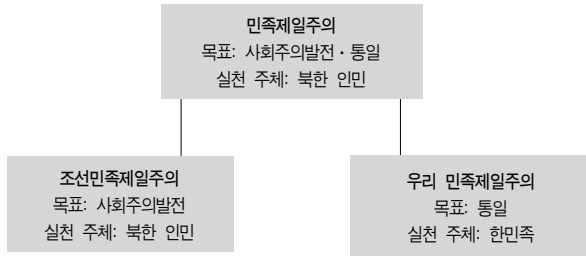
<표 3> 제목에 민족제일주의 포함한 『로동신문』(2004) 논설의 목표와 실천 주제

보도일자	제목	목표	실천 주제
2004.1.3.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높이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
2004.1.4.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공동사설이 제기한 올해 통일운동의 구호 - 온 민족을 통일애국어로 부르는 고귀한 명언	조국통일위업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2004.1.5.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의 가치	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	우리 민족
2004-01-14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공동사설에서 - 평화와 통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위력한 담보	평화통일위업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
2004.1.20.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민족공조의 사상정신적기초	조국통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2004.1.26.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힘차게 나뭇간다 -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통일운동의 가치	조국통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2004.3.30.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통일애국의 가치	자주통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2004.6.4.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필승의 가치	통일강성대국	전체 조선민족
2004.11.2.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자주통일의 필승의 가치	민족자주통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2004.12.28.	민족제일주의기치높이 펼쳐지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	사회주의건설	모든 일군, 당원, 근로자

실천 주제는 <표 3> 내용과 같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2004년 당시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담론에서 나타난 목표와 실천 주제에

<그림 1>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분화



서 북한 당국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04년 일어난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분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북한 당국이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이 시점에서 분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북한 당국에게는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대남 담론과 대내 담론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에게는 한국 정부 및 진보세력과 ‘반미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주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담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후에 북한 당국은 ‘우리 민족 끼리’ 및 ‘민족공조’를 대남 메시지로 내세우면서 공세적인 통일담론을 펼쳤다.³²⁾ 북한 당국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자 민족공조론 공세를 펼쳤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립구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한국 내 반미자주화투쟁을 촉구하였다.³³⁾ 2004년에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통일구호로 제시한 것

32) 박형중,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서울: 통일연구원, 2004), 2~3쪽.

33)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통일문제연구』, 제18권 1호(2006), 164쪽.

은 ‘우리 민족’ 화합을 방해하는 세력이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한국 내 진보세력, 노무현 정권과 연합하여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³⁴⁾ 실제로 2004년 『로동신문』 제목에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나오는 기사 가운데 한총련의 특별결의문,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강연, 범민련 남측본부 기념대회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강조했다는 보도가 있다.³⁵⁾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한국 내 진보세력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단계에서 북한 당국이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도 사용한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 사회주의발전을 추동하는 담론이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남북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이념”이라고 말하였다.³⁶⁾ 우리 민족제일주의만 내세우면 자칫 ‘사회주의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논리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다. 북한 당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발전을 추구하는 담론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 활용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34) 위의 글, 173쪽.

35)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12기 《한총련》 특별결의문,” 『로동신문』, 2004년 2월 22일;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진수는 자주성》: 《통일뉴스》 상임고문이 강조,” 『로동신문』, 2004년 2월 24일; “우리 민족제일주의로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자: 범민련 남측본부결성 9돌 기념대회와 중앙위원회 총회 진행,” 『로동신문』, 2004년 2월 27일.

36)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필승의 기치,” 『로동신문』, 2004년 6월 4일.

3)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약화

2005년 북한 내에서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공백기를 맞는다. 신년공동사설에 민족제일주의 용어가 나오지 않았고 『로동신문』 기사 제목에서도 민족제일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06년부터 민족제일주의 용어가 다시 등장하였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약화된 양상을 드러냈다. 제목에 민족제일주의가 있는 2006~2011년 『로동신문』 기사는 연평균 2.5개였다.

2006~2011년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통일을 목표로 한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과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한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 당국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신년공동사설에서 더 이상 통일구호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로동신문』 지면에서 통일 담론으로 활용하였다. 제목에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나오는 논설은 결론 부분에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양상이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 시기 『로동신문』 논설에서 담론의 목표를 실천하는 주체 역시 2004년처럼 2006~2011년에도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종족(ethnic)인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민족(nation)인 “모든 당원, 근로자” 등으로 등장한다. 북한 당국이 담론의 실천 주체를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경우에는 종족(ethnic),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경우에는 민족(nation)으로 구분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2004년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분리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았으며 통일을 목표로 하는 특성, 실천 주체를 종족(ethnic)으로 두는 특성도 유지한다는 사실을 2006~2011년 『로동신문』 논설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영향력이 약화된 이유는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더 이상 통일구호로 선전되지 않았던 것에 있다. 2005년 신년공동사설의 통일구호는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를 가리키는 ‘3대 공조’였다.³⁷⁾ 북한 당국은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 민족제일주의에 관해 평가를 내렸다.³⁸⁾ 3대 공조는 미국과 대결구도를 우리 민족제일주의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2005년 이후 반미 공세를 강화한 통일구호를 채택하면서 우리 민족제일주의 선전을 축소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후 대미관계가 악화하고 북한 당국이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남북관계도 경색 국면에 들어섰다. 북한 당국으로서 더 이상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통일과 종족(ethnie)을 내세운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약화하였다.

3.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용

1)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기능 축소

김정일 시대의 담론인 민족제일주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심지어 담론의 기능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민족제일

37)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2005년 1월 1일.

38) 림동춘, “3대공조는 자주통일 실현의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학)』, 제3호(2005), 60쪽.

주의 용어는 2012~2019년 『로동신문』 기사 제목에서 1회 등장하였다. 2014년 12월 28일 『로동신문』 논설이 그 사례다. 이 논설은 김정일 시기 조선민족제일주의처럼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목표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주의발전을 추구하는 담론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사용하는 경향은 2014년에 김정은이 발표한 담화에서도 나타난다. 김정은은 2014년 10월 24일에 민족유산보호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용어가 모두 등장한다. 김정은은 담화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애국사업이므로 선대의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사상이론을 이어 받아 구현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⁹⁾ 선대의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사상이론이 민족제일주의인데 그 내용을 문화유산 분야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런데 이 담화에서 김정은은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용어를 구분하여 쓰지 않았다.⁴⁰⁾ 김정은은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교류를 말하고 남북한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면서 한국과 학술교류도 지시했다.⁴¹⁾ 남북교류를 말하지만 통일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룡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유산 보호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²⁾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민족제일주의를 발양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해야

39)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로동신문』, 2014년 10월 30일.

40) 위의 신문.

41) 위의 신문.

42) 위의 신문.

한다는 논리다. 남북교류를 거론하면서도 통일이 아닌 사회주의발전을 목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발전을 말하는 통치담론으로 기능하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2018년 사회주의문화 발전을 말하는 담론으로 나타났다.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기능은 통치담론에서 그 하위인 문화담론으로 축소했는데 그 양상은 『민족문화유산』 2018년 제1호 사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제1호 사설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켜 민족의 넋을 곳곳이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정신적원동력이다.⁴³⁾

2016년과 2017년에도 『민족문화유산』 사설에서 나왔던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뜻풀이는 나오지 않았다.⁴⁴⁾ 2018년 제1호 사설에서는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원동력” 정의만 서술하였다. 2018년 제1호 사설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문화유산 계승과 발전에 한하는 용어로 활용한 것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영향력이 약화하면서 그 기능 역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43) “(사설) 혁명적인 총공세로 민족의 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자,” 『민족문화유산』, 제1호(2018), 3~4쪽.

44) 『민족문화유산』, 2016년 제1호, 2017년 제1호.

2) 김정일애국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계승

김정은 집권 이후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변용하여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의 내용이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의 논리는 “김정일처럼 애국하여야 한다”로 요약된다.⁴⁵⁾ 2012년 7월 26일에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논문을 발표한다. 논문에서 김정은은 김정일을 이른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친 애국자”로 부르며, 김정일이 보여 준 애국주의를 인민들이 실천하라고 말한다.⁴⁶⁾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 정화”인⁴⁷⁾ 김정일애국주의는 2015년부터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 체계에 포함되었다. 2015년 이후 북한 당국이 수립한 5대 교양 체계는 기존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의 틀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김정일애국주의’로 바꾼 형태다.⁴⁸⁾

민족제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는 어떤 관계일까? 북한 문헌은 두 담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로동신문』 지면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김정일애국주의를 통해서 교양되고 있다면서⁴⁹⁾ 조선

45)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에 관해 설명하면서 “장군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강조하였다.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1쪽.

46) 위의 책, 1쪽.

47) 위의 책, 8쪽.

48)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5대 교양을 중심으로,” 『도덕윤리와 교육』, 제64호(2019), 288쪽.

49)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무기,” 『로동신문』, 2014년

민족제일주의가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에 내재되어 있음을 밝혔다. 민족제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의 관계는 북한의 애국주의 이론서 『참다운 애국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에서 북한 당국이 서술하였다. 이 책은 “애국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싹트게 된다” 하면서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라고 밝혔다.⁵⁰⁾ 북한 문헌의 이와 같은 서술에서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이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민족제일주의 담론 가운데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김정일애국주의와 관련이 크다는 점이 드러난다.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기초로 뻗어 나왔다면 마땅히 내용 측면에서도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이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과 얼마나 유사한지 알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2012~2019년 제목에 ‘김정일애국주의’ 포함한 기사 54건 가운데 논설은 총 10건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처럼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내세우며 실천 주체 역시 민족(nation)으로 제시하였다. 논설을 분석한 결과 10건 모두 강성국가 또는 천하제일강국⁵¹⁾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

12월 28일.

50) 림춘관, 『참다운 애국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 145~147쪽.

51) ‘천하제일강국’ 사전 정의는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튼튼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이다. 김정 은은 “사회주의강국은 천하제일강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천하제일강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사회주의강국)’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으므로 천하제일강국 역시 사회주의발전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볼 수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

였다. 통일을 목표를 내세운 1건의 논설은 결론에서 강성국가도 같이 목표로 언급하였다.⁵²⁾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은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처럼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하며 목표의 실천 주체를 민족(nation)이라고 말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애국심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내세운 담론인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의 담론인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논리 구조 역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논리 구조를 계승하였지만 ‘인민의 행복’을 함께 목표로 세운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인민관에⁵³⁾ 근거한 목표로 기존 민족제일주의 담론에서 나타나지 않던 표현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 보육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고 각지의 여가시설을 보수 개건하는 행보를 보이며 ‘친인민적 인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의 목표로 ‘인민의 행복’과 ‘인민의 낙원 구축’을 드는 배경에 김정은의 친인민 이미지 구축이 있다.

사전(증보판)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872쪽;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증보판)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1138쪽.

52)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통일위업을 추동하는 위력한 정신적무기,” 『로동신문』, 2012년 12월 7일.

53)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의 세 가지 관점을 따르라고 지시한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의미하는 ‘조국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인민관’, 미래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후대에 덕을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일을 해내야 한다는 ‘후대관’이다.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 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1~9쪽.

3) 우리 국가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 흡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는 2018~2019년 『로동신문』 기사 제목⁵⁴⁾ 및 신년사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두 담론의 영향력이 약화한 가운데 새로운 담론인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북한 담론 내에 등장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앞으로 펼쳐 나가려는 각오와 의지”를 말한다.⁵⁵⁾ 2018년부터 북한 매체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주제로 한 기사를 다루기 시작하였다.⁵⁶⁾ 『조선녀성』 2018년 제2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 개념을 설명하는 기사가 등장했고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년 제2호와 제3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해설하는 기사가 나왔다.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기사는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관계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적 원천은 김정일애국주의”라고 정리하였다.⁵⁷⁾ 이론 체계화 과정을 거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9년 신년사에 등장하였다. 2019년 신년사에

54) 2019년 2월 5일 『로동신문』에서 김정일애국주의 용어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자” 구호의 형태로 나왔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자,” 『로동신문』, 2019년 2월 5일.

55)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우리 국가제일주의,” 『조선녀성』, 제2호(2018).

56) 우리 국가제일주의 용어가 『로동신문』 지면에 가장 먼저 등장한 때는 2017년 11월 30일 1면 사설이지만 이 사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이론이나 선전을 주제로 한 기사가 아니라 신형 ICBM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주제의 기사였다.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2쪽.

57) 리현숙,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3호(2018), 14~15쪽.

서 김정은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하고 말했다.⁵⁸⁾

민족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어떤 관계일까? 우선 우리 국가제일주의 정의는 기존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의와 유사한 형태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의의 ‘조선민족’ 자리에 ‘사회주의조국’을 대입하면 우리 국가제일주의 정의가 된다. 이는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논리 구조에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또 북한 문헌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우리 민족제일주의로부터 발전했다고 서술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속에서 승화발전된 것이다” 문장의 ‘승화발전’이라는 용어가 두 사상의 관계를 나타낸다.⁵⁹⁾ 『조선말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승화’는 “어떤 현상이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뛰어오르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⁶⁰⁾ 북한 당국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우리 민족제일주의에서 발전한 사상으로 설정했음이 드러난다.

북한 당국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전 단계로 보는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담론일까?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하는 담론일까?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어떤 담론을 계승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9년부터 『로동신문』 기사 제목에서 나타났다. 2019년 제목에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있는 기사는 총 13건이며 이 중 논설은 6건이었다. 2019년 제목에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있는 『로동신문』 논설에서 나타난 담론의 목표

58) “신년사 김정은,”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59) 위의 신문.

60)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증보판), 1587쪽.

<표 4> 제목에 우리 국가제일주의 포함 『로동신문』(2012~2019) 논설의 목표와 실천 주체

보도일자	제목	목표	실천 주체
2019.1.8.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깊이학습하자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사회주의강국건설	모든 일군, 당원, 근로자
2019.1.20.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진군	모든 일군, 당원, 근로자
2019.1.22.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사회주의강국건설	모든 당원, 근로자
2019.1.27.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사회주의강국건설	모든 당원, 근로자
2019.1.29.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담보	천하제일강국	우리 인민
2019.2.20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찬란한 미래	모든 일군, 당원, 근로자

와 실천 주체는 <표 4>와 같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제목에 나오는 『로동신문』 논설은 모두 목표를 ‘사회주의강국 건설’이라고 말하며 목표를 실현하는 주체는 민족(nation)으로 제시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사회주의발전을 추구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특성을 이어받은 담론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04~2011년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에서 나타났던 통일을 목표로 하는 특성과 실천 주체를 종족(ethnie)으로 제시하는 특성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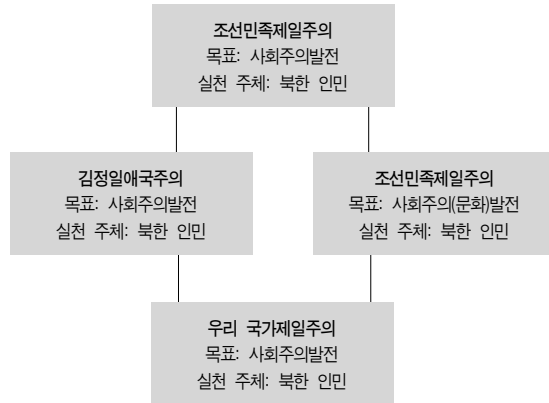
『로동신문』에서 확인한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특성은 『민족문화유산』 사설에서도 나타났다. 『민족문화유산』 2019년 제1호 사설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언급한 문장은 4개였다. 사설 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언급한 문장에서 사회주의발전 또는 통일 관련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사설은 “사회주의문명건설 달성을 위해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 교양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⁶¹⁾ 사설이 우리 국가제일주의 목표로 제시한 민족유산보호사업 진흥과 사회주의문명건설은 문화 분야의 발전에 해당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2018년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목표로 나타났던 사회주의 문화 발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설은 조선민족제일주의 및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조선민족제일주의 명칭 대신 우리 국가제일주의 명칭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논리를 흡수하여 발전한 담론임을 증명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가 계승하였던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까지 이어졌다.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조선민족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김정은 정권은 왜 이 시점에서 ‘민족제일’이 아닌 ‘국가제일’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쓰기 시작했을까? 정권 안정화 이후 김정은 정권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치담론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대회와 헌법 개정을 통해 군 중심의 비상체제에

61) “(사설)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나가자,” 『민족유산』, 제1호(2019), 3~4쪽.

<그림 2> 조선민족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내용을 계승한 우리 국가제일주의



서 당 중심의 국가 체제로 재정비하였다. 2018년에는 전략 노선을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또 2018년에는 대외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기존과 달라진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민족제일주의 담론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국가의 달라진 위상은 2018년 김정은의 대외활동과 관련이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언급하였고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가 높아가고 있다”고 자찬하였다.⁶²⁾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해설하는 『로동신문』 기사 역시 “오늘 우리 조국은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서서 국제적영향력을 높여나가고 있다”면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높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⁶³⁾ 우리 국가제

62) “신년사 김정은,”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63) “[사설]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

일주의가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개념을 내세운 것이다. ‘달라진 국제적 지위’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김정은의 대외행보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말한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김정은의 업적을 연상하게 만드는 ‘국가’를 명칭에 사용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또 ‘높아진 세계적 지위’에 맞춰서 더 강도 높은 헌신과 동원을 인민에게 요구한다. 『로동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산품의 질을 높여야 하며 질은 좋아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⁴⁾ 인민에게 단순히 ‘잘하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안목”, “세계적인 경쟁력”, “세계를 따라앞서기” 표현에서 북한 당국의 의도가 드러난다.⁶⁵⁾ 고품질 생산을 위해 헌신과 동원을 강조하는 경향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 중시 정책과 관련이 크다. 정영철(2020)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달성을 위한 인민 동원을 정당화하는 담론이라고 해석하였다.⁶⁶⁾ 북한 당국이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내세운 배경에는 김정은 개인승배 및 경제발전을 위한 동원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자,” 『로동신문』, 2019년 1월 21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로동신문』, 2019년 1월 22일.

64) “절제고에 애국이 있다,” 『로동신문』, 2019년 10월 24일.

65)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 『로동신문』, 2019년 2월 20일;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이라,” 『로동신문』, 2019년 5월 31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66)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23~26쪽.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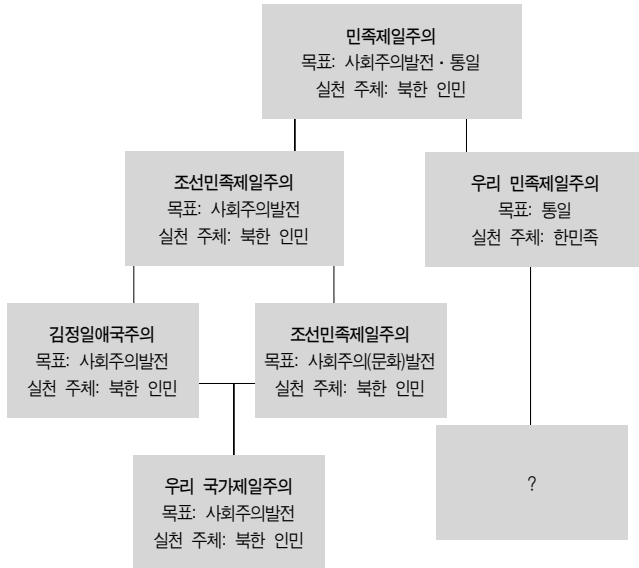
북한의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2000~2019년 20년 간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통일과 사회주의발전을 모두 추구하던 민족제일주의는 2004년 통일을 목표로 하는 담론인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사회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담론인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분화했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인민’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민족제일주의와 달리 ‘북,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대상으로 하는 담론이 되었다. 2006~2011년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분화 양상은 지속적인 가운데 『로동신문』 보도 빈도가 줄어들면서 영향력이 약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정은 집권 후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영향력이 더욱 약화하였으며 기능의 범주가 축소하기도 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 기능했던 것이 확인되지만 김정일 시기에 비해 보도 빈도가 급격하게 줄었다.

북한 내에서 민족제일주의 담론이 약화한 사이에 그 기능을 이어받은 두 개의 담론이 등장했다.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능을 계승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기초로 한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은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사회주의발전 추구하고 문명강국 건설을 추구하는 기능까지 흡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는 <그림 3>처럼 계보로 구성할 수 있었다.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계승한 담론이 김정은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그림 3>의 계보를 통해 나타난다. 김정은 시기 민족제일주의 담론 내에서 통일 담론이 약해진 원인은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림 3>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계보



첫째,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일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아버지보다 통일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말하는 ‘아버지의 유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3년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담화를 1997년 8월 20일에 『로동신문』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다.⁶⁷⁾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다음 해인 2012년 5월 30일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담화를 단행본을 통해 발표하였다. 김정일의 담화는 “조국통일은 김일성의 필생의 위업”이라면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책임

67)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1997년 8월 4일.

과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⁶⁸⁾ 한편 김정은의 담화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유훈이라고 말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⁶⁹⁾ 이 담화 내용에서 김정은은 조국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인식하는 아버지의 유훈은 통일보다 사회주의발전에 무게를 둔다. 김정일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시기의 남북관계가 2000년대와 다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연계하여 각종 남북협력사업이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이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2004년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대상으로 한 담론인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에는 북한 당국의 각종 군사도발과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냉랭하였으며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는 남북 인적교류가 급격하게 줄면서⁷⁰⁾ 남북한의 접점이 작아졌다. 한국과 접점이 크지 않으므로 북한 당국이 단일민족과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도 낮아진 것이다.

앞으로 김정은 시기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민족제일주의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문명강국 추구와 함께 문화 분야에서 담론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전미영(2018)은 김정은 집권

68) 『로동신문』, 1997년 8월 4일.

69)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제2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4~5쪽.

70) 국가통계포털 남북인적왕래현황에 따르면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인적교류는 2015년(132,101명)의 10% 수준인 14,787명으로 떨어졌으며 2015~2019년에는 10,000명 미만이었다. 국가통계포털 남북인적왕래현황, <https://kosis.kr/index/index.do>(검색일: 2021년 2월 25일).

이후 북한 당국이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와 통치담론이 아닌 문화예술 영역에서 민족감정을 고취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⁷¹⁾ 『민족문화유산』 2012~2019년 제1호 사설에서 2019년 제1호를 제외하고 모두 민족제일주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고안했다고 주장하는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이미 등장하였기 때문에 김정일 시기처럼 민족제일주의 담론이 사회주의발전이나 통일을 목표로 하는 통치담론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민족제일주의 파생 담론으로 사회주의발전을 목표로 한 담론으로 기능하는 김정일애국주의 및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국가’ 및 ‘북한 민족’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논리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기존 입장에 변화를 줄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민족제일주의 담론과 그 파생 담론에서 통일이 담론의 목표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4월 5일 / 채택: 4월 8일

71) 전미영,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 『북한학보』, 제43집 1호 (2018), 236~245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제2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_____,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김정일선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김정일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김정일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_____,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림춘관, 『참다운 애국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_____,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_____,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엄기영, 『신문학개론』(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조형창 외, 『기사집필수업』(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4).

2) 논문

리현숙,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3호(2018).

림동춘, “3대공조는 자주통일 실현의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제3호(2005).

“(사설) 혁명적인 총공세로 민족의 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자,” 『민족문화유산』, 제1호(2018).

“(사설)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

쳐나가자,” 『민족유산』, 제1호(2019).
“우리 국가제일주의,” 『조선녀성』, 제2호(2018).

3) 신문

『로동신문』, 1997년 8월 4일, 2000년 1월 1일, 2002년 2월 3일, 2003년 6월 18일,
2004년 1월 1일, 2004년 2월 22일, 2004년 2월 24일, 2004년 2월 27일,
2004년 6월 4일, 2004년 12월 28일, 2005년 1월 1일, 2012년 12월 7일,
2014년 10월 30일, 2014년 12월 28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1월 8일,
2019년 1월 20일, 2019년 1월 21일, 2019년 1월 22일, 2019년 1월 27일,
2019년 2월 5일, 2019년 2월 20일, 2019년 5월 31일, 2019년 10월 24일

4) 기타 자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CD)(2005).
『민족문화유산』 2007년 제1호; 2009년 제1호; 2010년 제1호; 2012년 제1호;
2016년 제1호; 2017년 제1호.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영주·이범수, 『현대 북한 언론의 이해』(서울: 한울엠플러스, 1999).
박형중,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서울: 통일연구원, 2004).
스미스, 앤서니 D.(Anthony D. Smith),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강철구 옮김(서울: 용의숲, 2012).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서울: 통일연구원, 2019).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2) 논문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 (2019), 309~345쪽.
-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통일문제연구』, 제18권 1호(2006), 149~177쪽.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2014), 65~92쪽.
-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권 3호(2013), 187~212쪽.
- 전미영,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 『북한학보』, 제43집 1호 (2018), 41~74쪽.
-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1호(2020), 8~38쪽.
-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5대 교양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 교육』, 제64호(2019), 271~296쪽.
- 한승호·이수원,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호 ‘김정일애국주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국방정책연구』, 제29권 2호(2013), 113~138쪽.

3) 신문

『조선일보』, 2019년 1월 10일.

4) 기타 자료

국가통계포털 남북인적왕래현황, <https://kosis.kr/index/index.do>.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연합뉴스, 2019년 1월 29일.

3. 국외 자료

1) 신문

『조선신보』, 2021년 1월 9일.

Changes in the Discourse on ‘Nation Firstism’ in North Korea

Kim, Bomin(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North Korea's nationalist discourse between 2000 and 2019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r nation-first’ principle, ‘Joseon nation-first’ principle, ‘Kim Jong Il patriotism’, and ‘Our state-first’ principle. Using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s on ‘nation firstism’ from 2000 to 2019 found in the *Rodong sinmun*. In 2004, the discourses on ‘nation firstism’ differentiated into ‘Our nation-first’, a discourse aimed at unification and set the Korean people as the subject of practice; and ‘Joseon-nation first’, a discourse aimed at socialist development and North Koreans as the subject of practice. This divergence was maintained from 2006 to 2011, but the influence of the discourse showed a weakening pattern. After Kim Jong Un came to power, from 2012 to 2019 the influence of ‘Nation Firstism’ discourse weakened even more. ‘Kim Jong Il patriotism’ and ‘Our state-first’ discourses inherit the function of the ‘Joseon-nation

first' discourse, with the aim to develop socialism. The agent of practice was set as the North Korean people.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discourse of 'Our nation-first', with its aim on unification and subject of practice the Korean people, did not emerge from the discourses of 'Kim Jong Il patriotism' and 'Our state-first'. The discourse toward unification weakened during the Kim Jong Un era. This study interprets this as the result of Kim Jong Un's perception of unification being different from his predecessors, as well as the changed inter-Korean relations.

Keywords: 'Our state-first' principle, 'Joseon nation-first' principle, 'Our nation-first' principle, Kim Jong Il patriotism, nationalism in North Korea, North Korean governing discourse